



관련 링크

NPC(우호) :  No.02 시나리오 보상용 NPC

NPC(적대) :  No.02 시나리오 적 NPC

맵 :  No.02 시나리오 맵

사진 드라이브 :

메인 카드군 : 요괴소녀

배경 : 베이스, 네거티브 월드(언데드족 / 악마족 / 환상마족)

등장 종족 : 언데드족 / 사이킥족

### MEMO :

1. ~~엔딩 수정~~(이건 전투 테스트 하고 추가)
- 2.

====[커스텀 시나리오]====





[요괴소녀의 초대]  
플레이 인원 수 : ?~?  
상정 플레이 시간 : ?~?시간  
리타이어 난이도 : ?~? 등급  
태그 : #생존, #언데드, #중세, #전투  
목표: (사령왕 도하스라 처치)

====[커스텀 시나리오]====

사용 자원 : 『요괴소녀』정보, 『사령왕 도하스라』정보, 『생자의 서』정보

- {} : 판정 여부
  - [] : 성공 실패 대실패 대성공 시 개별 표기
  - () : 획득 능력치 표기
- [] : 설명, 혹은 안내서 등등
- () : 선택지 구분
- 중요한 이름(고유명사) : 볼드체

### Scene 표기(F-S-T) :

- F(첫 번째 숫자) : 크게 나눈 스토리(막)
  - ch.1 - 베일에 싸인 편지(프롤로그)  No.02 시나리오의 사본
  - ch.2 - 사념으로 가득찬 세계(초장)  No.02 시나리오의 사본
  - ch.3 - 구원의 밑준비(중장)  No.02 시나리오의 사본
  - ch.4 - 사령왕과의 최후의 결전(종장)  No.02 시나리오의 사본
  - ch.5 - 그 이후의 이야기(에필로그)
- S(두 번째 숫자) : 막의 세부 스토리(장)
- T(세 번째 숫자) : 장의 세부 선택지

#### ==== [시나리오 고유 기믹1] ====

이 시나리오에 한정하여, PC의 LP가 0이 될 경우(필드에서라면 즉시, 전투 중이라면 전투 종료 후)에 이하의 효과를 적용합니다. (유희왕 재정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적용됩니다.)

- 상태, ‘언데드화’의 스택이 1 증가한다.
- 현재 LP와 현재 SP가 각각 최대치의 90%가 된다.

[언데드화] : 네거티브 월드에 의해 강제로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이들에게 찍히는 **낙인**입니다. 하나 당 최대 LP와 최대 SP가 각각 10씩 감소합니다(최대 LP가 0이 될 경우, 해당 세션에서는 회생불가 리타이어 상태가 된다). 시나리오 전용 아이템인 **생명의 조각** 한 개 당 한 번 지울 수 있습니다. 사망한 육체를 월드의 특성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태를 보유한 채로 베이스로 귀환 시, 리타이어로 취급되어 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플레이어 A가 치명적인 일격을 받아 LP 0 / 100, SP 50 / 100 상태가 되었을 경우

1. 상태 ‘언데드화’가 1개 부여되고.
2. 최대 LP와 최대 SP가 각각 10씩 감소하여 LP 0 / 90과 SP 50 / 90이 되며.
3. LP와 SP가 각각, 최대 LP(90)의 90%인 81 LP, 최대 SP(90)의 90%인 81 SP가 된다.

[생명의 조각(시나리오 전용 아이템)] : 생명의 양기가 가득 담긴 조각입니다. 사용 시, ‘언데드화’ 1개를 제거합니다. 한 칸의 인벤토리에만 넣을 수 있으며, 한 칸의 인벤토리에 9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시나리오 고유 기믹2] ====

네거티브 월드의 주민인 망자들은, 플레이어에 의해 부여된 상태이상 ‘피로’ ‘상처’ ‘맹독’ ‘화상’ ‘출혈’ ‘수면’ ‘기절’의 지속시간이 최대 2라운드까지로 고정됩니다.

또한, 탐색 중 돌입한 전투에서 플레이어 측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5d4}라운드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 ==== [TRPG 고유 기믹] ====

GM이 꽤썸죄로 난이도를 대폭 상향할 수 있습니다. GM은 신이고 세계 그 자체입니다.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이스 갓만 빼고요.

#### ==== [시나리오 개시] ====

##### ==== scene #1 ====

어느 날, 당신은 수수께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편지는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죠.

찢어져있어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도와달라’는 것이었으며, 말미(末尾 : 끝부분)에는 『네거티브 월드』의 좌표가 적혀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본 후, 혼자서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당신은 함께 떠날 이들을 찾다가 당신의 것과 똑같은 편지를 받은 여행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 scene #1-1 ====

(RP로 서로 자기소개)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나자마자, 두꺼운 다크서클이 인상적인 한 남자가 피곤에 찌든 표정으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인사를 건네는군요.

루즈 : “예, 뭐. 워프 게이트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멜허브 코퍼레이션, 안내 **15**팀 소속의 루즈입니다.”

남자, 루즈는 귀찮음 가득한 말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일처리를 대충 하지는 않는 성격인지, 그는 여러분의 목적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루즈 : “네거티브 월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흥가나 공동묘지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 등, 그럭저럭 으스스하게 생긴 차원입니다. 위험도로만 따지면 손에 꼽히는 곳이라서, 원칙상으로는 V사의 ‘보험’을 반쯤은 필수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아, 하며 여러분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본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루즈 :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희 M사에서도 기본적인 계약서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점, ‘루즈」

- (품목 : 포션류, 탐색용품류, 듀얼식, 보험들)
  - ●보험(일반)(500G) : 세션 종료 시에 베이스로 복귀하지 못했더라도 캐릭터는 리타이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프리미엄)(1000G) : 리타이어 시에 1번, 다시 부활합니다. 이 경우, 페어리와 의 유대가 1 감소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마치고 나면, 그는 여러분을 워프 게이트 앞으로 안내해줍니다.

루즈 :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일순간의 정적과, 시야를 가득 채우는 자색의 밝은 빛, 마지막으로 몸이 어디론가 빨려들어가는 것같은 기묘한 감각까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정보의 폭풍이 여러분의 몸을 휩쓸니다.

==== scene #2 ====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오오———

스산한 바람이 여러분의 몸을 휩쌌습니다.

눈을 떠보면, 직전까지 있던 곳과는 확연하게 다른 풍경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눈앞에는 거대한 고딕풍의 저택이 그 장엄한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 ==== scene #2-1 ====

여러분은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스스——!!

...방금, 무언가 희끄무레한 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였죠?

{모든 플레이어가 [지능 굴림]}

[대실패]

- 귀, 귀신인 게 틀림없습니다...!!
- (시나리오 전용 상태이상 ‘혼란’ 부여)
  - [혼란]: 판단력이 흐려지며, 다음 1회의 전투에서 우선도가 30 감소합니다.

[실패]

- 아쉽게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공]

- 기모노를 입은 여자 아이, 였던 것 같은데요...?
- 적어도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으스스한 귀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성공]

- 그것은 연분홍색 기모노를 입은 베이지색 머리의 여자아이였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 루즈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던 것들 중, 짧게나마 언급되었기 때문이죠.
- 그녀의 이름은 하루 우라라.
- 네거티브 월드의 가장 유명한 주민 중 하나입니다.
- (요괴소녀 정보 +1)

#### ==== scene #2-2 ====

빼꼼.

복도 너머의 모퉁이에서, 그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니다.

그녀는 여러분을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쪽이 불법 침입자네요.

저 소녀가 집주인인 걸까요?

하루 우라라 : “까르륵! 나 잡아봐라~”

갑작스레, 소녀가 그렇게 외치며 뛰어갑니다.

한 번 쫓아가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속도 굴림], [건강 굴림] 실행}

[전부 실패]

- (scene #2-2-1으로 이동)

[한 명이라도 성공]

- (scene #2-2-2으로 이동)

==== scene #2-2-1 ====

하루 우라라 : “까르륵!”

하루 우라라 : “완~전 느려! 체력 허접♡”

숨을 헉헉거리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분을, 소녀가 깔깔거리며 비웃습니다.

분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저 소녀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깐요.

당신의 생각보다 소녀가 너무 빨랐다고 변명하기에는, 뭔가 추하잖아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자고요.

...

...

어쨌거나, 여러분이 숨을 어느 정도 골랐을 때쯤음, 소녀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옵니다.

- (scene #2-3으로 이동)

==== scene #2-2-2 ====

당신의 빛과 같이 빠른 몸놀림은, 소녀를 성공적으로 따라잡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루 우라라 : “까르륵! 빠르다, 빨라! 잡혀버렸어!”

하루 우라라 : “이렇게 어린 여자애와의 놀이에서 진심을 내다니, 완전 최악♡”

소녀는 뭐가 좋은지 목 부분의 기모노를 잡힌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도 까르륵, 하고 웃습니다.

- (scene #2-3으로 이동)

==== scene #2-3 ====

하루 우라라 : “놀아줘서 즐거웠어! 난 하루 우라라야!”

(scene #2-2-2를 진행했을 경우, 이하의 서술 추가)

- 하루 우라라 : “그러니까, 좀 내려주지 않을래?”
- (놀아줄 경우)
  - 하루 우라라 : “의외네! 보통은 다들 무시하는데!”
- (놀아주지 않을 경우)
  - 어느샌가, 하루 우라라는 몸을 반투명하게 만들고 당신의 손아귀를 빠져나갑니다.
  - 하루 우라라 : "사실 장난삼아 물어본 거지롱~!"
  - 하루 우라라 :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네, 완전 최악♡”
  - 그녀는 다시 한 번 당신을 보며 비웃듯 키득거립니다.

소녀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루 우라라 : “와라시의 편지를 받고 온 거지? 그리고 당연히 그 이외의 정보는 전~부 모르는 거겠고!”

소녀는 여러분의 대답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대화를 진행시켜나갑니다.

하루 우라라 : “좋아, 내가 특.별.히. 허접한 %d(~~호칭. 오빠 언니 그거.~~)을 위해 설명해줄게♡”

==== scene #2-4 ====

그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본디 이곳은 위험하디 위험한 네거티브 월드임에도, 상당히 평화로웠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령왕 도하스라라는 불청객이 나타나 세력을 불리며, 결국 금단의 주술을 이용하여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자신의 말만 따르는 꼭두각시로 부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생자의 서’라는. 상위 차원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미지의 물건을. 사령왕 도하스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다들 자아를 잃어가던 그때, 하루 우라라와 저택 와라시의 동료 중 한 명인 유령토끼가, 그녀만이 가진 특별한 힘인 사이코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녀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코 에너지 또한 일종의 ‘힘’인 이상 한계가 있는 것이 순리. 이렇게 버티는 것조차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죠.

따라서 그런 까닭에, 저택 와라시가 그녀들을 도와줄 이를 찾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요괴소녀 정보 +2)

(도하스라 정보 +3)

(생자의 서 정보 +1)

하루 우라라 : “허접♡ 이제 이해하겠어?”

...설명 중간중간에 자주 ‘허접♡’거리는 것만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 scene #2-5 ====

하루 우라라 : “그럼, 와라시를 만나러 가자!”

하루 우라라 :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서 잘 따라오라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여러분을 어디론가 끌고갑니다.

==== scene #2-6 ====

우다다다다——!

하루 우라라 : “와라시! 데려왔....”

하루 우라라 : “어라? 어디갔지?”

우다다, 하는 소리와 함께 앞서 계단을 뛰어내려간 하루 우라라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렇게 도착한 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볼 의사를 가진 모든 플레이어가 [지능 굴림]}

[대실패]

- 그 누구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혼자 넘어집니다.
- (LP -15)
- 하루 우라라 : “허접♡ 멍청이♡”
- 당신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실패 이하]

- 딱히, 아무 것도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 ...틱택토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저 기모노 소녀의 이마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성공 이상]

- 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 아마, 하루 우라라와 그녀의 친구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군요.
- 의문형인 이유는, 그 그림이라는 게 어린애가 그린 것같은 뻘뻘한 크레파스로 이루어진 선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 「하루 우라라」「유령토끼」「부유벚꽃」「저택 와라시」「하나 미즈키」「샤요 시구레」
- 그나마 그 아래에 적힌 이름표 덕분에 누가 누구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인 점일까요.
- (요괴소녀 정보 +2)

[대성공]

- 무언가 팔랑거리는 쪽지 하나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대성공인 유저에게로의 서술)

- 당신이 그 쪽지를 집어들려던 그때, 하루 우라라가 당신보다 한 발 앞서 그 쪽지를 집어듭니다.

(그 외 유저에게로의 서술)

- 여러분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때, 하루 우라라가 의자 위에서 쪽지 하나를 집어듭니다.

하루 우라라 : “아항!”

쪽지를 펼쳐본 하루 우라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용이 궁금하다고 할 경우)

- 하루 우라라 : “겨우 그런 궁금증도 못 참는거야?”
- 하루 우라라 : “나이가 아깝네♡”
- 이하의 「와라시의 편지」 공개

※※※

내 방으로 와줘. 설명은 거기서 해줄게.

※※※

#### ==== scene #2-7 ====

하루 우라라 : “정말~ 와라시는 부끄럼쟁이라니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택 와라시는 낮을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하루 우라라 : “어쩔 수 없지. 따라와! 와라시의 방으로 가자!”

#### ==== scene #3 ====

하루 우라라가 안내해준 방에 들어가자, 등을 돌린 채 창밖에 떠있는 보름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소녀가 보입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소녀, 저택 와라시가 여러분을 돌아봅니다.

저택 와라시 : “아.....”

낯선 불청객의 모습에 잠깐 흠칫하던 그녀는, 여러분과 함께 들어온 하루 우라라를 보고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택 와라시 : “...안녕하세요.”

#### ==== scene #3-1 ====

여러분은 와라시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들 이외의 나머지 네 명의 요괴소녀들은 전부 사령왕 도하스라에게 붙잡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하루 우라라가 한 번 언급했었던 그 ‘생자의 서’. 사령왕의 힘의 근원인 그것만 파괴할 수 있다면, 그의 힘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를 약화시킨 후, 최종적으로는 영원히 사멸시키는 것이 그녀들의 최종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택 와라시 : “그럼.... 계획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녀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현재, 네거티브 월드의 절대다수의 주민이 도하스라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령왕의 정신력에도 한계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그건 거꾸로 말한다면, 주민 한 명 한 명에는 그가 그리 힘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죠.

정면돌파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 ==== scene #3-2 ====

이어서, 와라시는 유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본래, 네거티브 월드의 주민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죽지 못해 사는 망령들」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을 무찔렀다 하더라도 마음 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살아나게 된 망자들과 재차 반복되는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 ==== scene #3-3 ====

그녀의 설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총 2가지. 첫째는 앞서 말했던 대로 ‘생자의 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는 붙잡혀있는 요괴소녀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 우라라가 여기저기 숨어다니며 얻어낸 정보에 따르면, 그녀들은 사령왕의 성에 존재하는 지하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우선시하든간에, 각각의 선택지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요괴소녀의 구출을 먼저 실행할 경우, 여러분은 그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령왕의 경계는 더욱 심해지겠죠.

반대로 생자의 서의 파괴를 우선시할 경우, 도하스라는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령왕에 의해 요괴소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택 와라시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합니다.

==== scene #3-4 ====

하루 우라라 : “어느 쪽이든, 사령왕의 성으로 가야 하는 건 매한가지잖아? 그럼 굼벵이처럼 멍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출발부터 하자♡”

하루 우라라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착해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터.

발걸음을 재촉하며 여러분은 저택을 나섭니다.

==== scene #3-4 ====

...  
...  
...

얼마 정도 걸었을까요.

여러분의 시야에, 뿔로 이루어진 기괴한 성채가 들어옵니다.

하루 우라라 : “우으.... 저기가 사령왕의 성이야....”

우라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을 경우)

- 하루 우라라 : “저택의 결계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점점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

==== scene #3-5 ====

어쨌거나, 여러분은 성의 입구에 가까워졌습니다.

동반자를 찾고 있는 주인 모를 무수한 손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기괴하고 넓은 해자가 있었지만, 성문이 내려와있는 이상, 여러분이 신경쓸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 우라라 :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어? 설마~ 겁이라도 먹은 거야?”

어느샌가 성문 안쪽으로 들어간 하루 우라라가 여러분을 도발합니다.

하루 우라라 : “겁쟁이♡ 허접♡ 밤에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부모님이랑 같이 자자고 하겠네♡”

저택 와라시 : “...하아.”

...빨리 저 무례한 꼬맹이부터 쫓아갑시다.

#### ==== scene #3-6====

성 안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었죠.

모든 공간을 전부 뒤져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택 와라시 : “...역시, 여기에 다른 언데드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만 감지하기 힘들어요.”

저택 와라시 : “그래도, 아마..... 근처까지 가보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저택 와라시는, 탐색 맵에서 같은 층의 거리 5 이내의 가장 가까운 이벤트 타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벽은 무시).

\*만약 그것이 요괴소녀 해방 이벤트일 경우, 그것이 누군지도 알 수 있습니다.

#### ==== scene #3-6====

(탐색 맵)

(구출/파괴 대상 : 해결 유형 - 해결 후 효과)

(맵 참고)

#### No.02 시나리오 맵(미완성)

생자의 서 : 전투(지하 1층) - 보스전에서, 『사령왕 도하스라』는 상태 [생자의 서] 획득 불가

- [생자의 서] : 전투 개시 시, 자신의 최대 LP 및 현재 LP는, 플레이어의 수 × 30만큼 증가한다.

유령토끼 : 퍼즐(지하 1층) - {모든 요괴소녀 해방} 시, 장비 아이템 ‘사이킥 링’ 1개 지급

- [사이킥 링] : 장착중일 경우, 언데드족 보스와의 보스전에서, 세션 중 1회에 한정하여 10만큼의 LP 피해를 자동으로 경감한다. 그 후 {1d100}을 굴려 80 초과가 나왔다면 영구적으로 파괴된다.
- 페어링 조건 : GM판단 하에, 세션 내에서 [퍼즐 풀이], [전투], [사교 행위] 등의 분야에서의 기여도 총합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부유벚꽃 : 퍼즐(1층) - 이후부터 세션 동안, 모든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감금되지 않은 요괴소녀의 수}만큼 증가

- 페어링 조건 : 가장 많은 적에게 마지막 일격(막타)을 날린 사람에게

하나 미즈키 : 퍼즐(1층) - 이후부터 세션 동안, 모든 플레이어가 라운드 개시 시에 LP를 {감금되지 않은 요괴소녀의 수}만큼 회복

- 페어링 조건 : 세션 내에서 가장 많은 아군(자신 포함)에게 도구 / 스킬로 치유량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사요 시구레 : 탐색(1층) - 이후부터 세션 동안, 모든 플레이어의 내구가 {감금되지 않은 요괴소녀의 수}만큼 증가

- 페어링 조건 : 세션 내에서 가장 많은 LP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루 우라라 : (없음) - (없음)

- 페어링 조건 : 세션 내에서 ‘하루 우라라’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저택 와라시 : (없음) - (없음)

- 페어링 조건 : (없음)(페어링 불가)

(어떤 한 요괴소녀라도 해방했을 경우)

- 사령왕 도하스라 처치 전까지, 생자의 서 파괴 불가
- (scene #3-6-1으로 이동)

(생자의 서를 파괴했을 경우)

- 사령왕 도하스라 처치 전까지, 요괴소녀 해방 불가
- (scene #3-6-2으로 이동)

==== scene #3-6-1 ====

여러분은 모든 요괴소녀를 해방했습니다.

대신 생자의 서의 결계가 너무나도 강해져 파괴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소하지만은 않은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저기서 까르륵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녀들을 보면 보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이제, 사령왕만 남은 것이로군요.

여러분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인지, 저택 와라시가 다가와 말합니다.

저택 와라시 : “생자의 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사령왕을 말아주세요.”

(scene #4로 이동)

==== scene #3-6-2 ====

여러분은 생자의 서를 파괴했습니다.

쿠르르——!!

성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불청객에 의해 생자의 서를 파괴당한 탓에, 극도로 분노한 것 같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요?

아마, 약해진 사령왕은 여러분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붙잡혀있는 요괴소녀들이 조금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scene #4로 이동)

==== scene #4 ====

여러분은 드디어 최상층에 도달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문 뒤에, 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우두귀 & 마두귀 : 【————!!】

—여러분을 향해 돌진해오는, 두 수문장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전투 진입 『우두귀』x1」

「전투 진입 『마두귀』x1」

==== #4-1 ====

여러분이 동물의 얼굴을 가진 두 망자를 쓰러뜨리고, 그들이 지키던 문을 밀어보려 하면, 그것은 끼이익 하는 소름끼치는 소리와 함께 스스로 열립니다.

사령왕 도하스라 : “하찮은 필멸자들 주제에 이몸의 대업을 방해하다니—”

사령왕 도하스라 : “—죽음으로 속죄하라!”

「전투 진입 『사령왕 도하스라』x1」

(『생자의 서』가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전투 개시 시, 『사령왕 도하스라』가 상태 ‘생자의 서’ 획득)

(『생자의 서』: 전투 개시 시, 자신의 최대 LP 및 현재 LP는, 플레이어의 수 × 30만큼 증가한다.)

==== 전투 내 기믹 ====

요괴소녀 해방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경우’들은 독립적으로 감지

(모든 요괴소녀를 해방했을 경우)

- 3라운드, 또는 『사령왕 도하스라』의 LP가 70% 이하로 감소했을 때, 『생자의 서』 파괴 알림.
- 『생자의 서』 파괴 시, 『사령왕 도하스라』는 즉시 최대 LP의 20%만큼의 LP 피해를 입는다.

(일부 요괴소녀를 해방하되, 전부 해방하지는 않았을 경우)

- 5라운드, 또는 『사령왕 도하스라』의 LP가 50% 이하로 감소했을 때, 『생자의 서』 파괴 알림.
- 『생자의 서』 파괴 시, 『사령왕 도하스라』는 즉시 최대 LP의 15%만큼의 LP 피해를 입는다.

(그 어떤 요괴소녀도 해방하지 않았을 경우)

- 7라운드, 또는 『사령왕 도하스라』의 LP가 30% 이하로 감소했을 때, 『생자의 서』 파괴 알림.
- 『생자의 서』 파괴 시, 『사령왕 도하스라』는 즉시 최대 LP의 5%만큼의 LP 피해를 입는다.

(『사령왕 도하스라』의 LP가 50%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

- 사령왕 도하스라 : “네놈들, 조금 성가시군.”
- 사령왕 도하스라가 혀를 찢, 하고 찹니다.
- 사령왕 도하스라 : “그런데.... 뭐 잊은 게 있지 않나?”
- 뒤를 돌아보면, 어느샌가 회복해 몸을 일으킨 『마두귀』와 『우두귀』가 포효하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지, 조금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 「전투 난입 『우두귀』」
- 「전투 난입 『마두귀』」
- (이로 인해 난입한 페어리의 최대 LP는 60이 된다. 또한, 받는 피해가 공격자의 ‘근력’ 수치만큼 증가한다.)

(『사령왕 도하스라』의 LP가 25%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

- 사령왕 도하스라 : “크흐흐.... 네놈들 따위에 이걸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건만....”
- 현재 순서와 관계없이 『사령왕 도하스라』의 턴 진행
- 사령왕이 지팡이를 치켜듭니다.
- 지팡이에 박혀있는, 붉은색 보석이 불길한 빛을 내뿜습니다.
- 사령왕 도하스라 : “무력감에 빠져 두려워해라!!”
- (이 턴에 『사령왕 도하스라』는, 『불사룡의 우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 (『불사룡의 우안』 사용 후, 전투 필드에 『우두귀』나 『마두귀』가 남아있을 경우, 그들의 LP를 0으로 하고 『사령왕 도하스라』는 감소한 수치의 절반만큼의 LP 보호막을 획득(최대 50))
- (~~난입한 들 무시하고 사령왕 패는 게 빠른 공략법인 거 의도한거임 ㄹㄹ~~)

==== 엔딩 ====

도하스라 : “어째서... 어째서 이 몸이—!!”

야망을 가졌던 불사자의 왕은

#### 엔딩 A-1

{조건 - 사령왕 도하스라에게 승리, 요괴소녀 중 하나 이상을 인터링크한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

(플레이어 이름)이 인터링크한 (요괴소녀 이름)는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며 자신도 여행자의 세계로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요괴소녀 중 하나 이상을 인터링크한 다른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요괴소녀들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여러분과 여섯 요괴소녀는 함께 돌아가기 위해 와라시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워프 게이트 앞에서 문득 창문을 바라본 여러분은 창틀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 엔딩 A-2

{조건 - 사령왕 도하스라에게 승리, 어떤 플레이어도 요괴소녀를 인터링크 하지 않았을 경우}

여섯 요괴소녀들은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며 진심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와라시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이 워프 게이트 앞에 서자 요괴소녀들은 제각기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을 배웅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별의 아쉬움을 억누르며 여러분에게 손을 흔드는 것만큼은 같아보이네요.  
여섯 요괴소녀들의 미소는 여러분을 감싸는 환한 빛에 의해 점점 멀어집니다.

#### 엔딩 B-1

{조건 - 사령왕 도하스라의 체력을 절반을 줄이기도 전에 패배했을 경우}

여러분은 생자의 서가 파괴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습니다.  
곧 도하스라는 요괴소녀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그들을 막아서겠죠.  
모두 끝났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주민들은 단 한 명의 패자를 위해 조종당할 운명입니다.

#### 엔딩 B-2

{조건 - 사령왕 도하스라의 체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패배했을 경우}

여러분은 익숙한 장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곳은 이 세상에 처음 여행자들이 발을 디뎠던 와라시의 저택이네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서 들려오는 텔레파시를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의 정체는 유령토끼입니다.  
유령토끼는 여러분에게 생자의 서는 파괴되어 주민들의 세뇌는 풀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이코 에너지를 쥐어짜내 여러분을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택의 워프 게이트 앞으로 순간이동 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시 봉인되기 직전, 유령토끼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텔레파시로 들려오는 유령토끼의 목소리가 희미해집니다.

불사의 능력을 잃은 도하스라는 언젠가 자연히 사라지겠지요.

여러분은 세상을 구했지만 요괴소녀들은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여행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워프 게이트 앞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들의 마지막 바램일테니까요.

### 엔딩 B-3

{조건 - 사령왕 도하스라에게 도달하기 전에 전멸했을 경우}

여러분은 사령왕 도하스라를 쓰러트리기는커녕 그의 모습조차 보지 못한채 전멸했습니다.

작은 희망을 품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 요괴소녀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할 듯합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요괴소녀도, 자기자신마저도 그 무엇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